

답글에 달아 주신데로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말이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말이 큰 비밀인것 같습니다.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마음 깊이 와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리를(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던 중 한가지 질문이 떠올라 글을 올립니다.
새사람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새사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잘 깨달아지지 않아 신앙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는
죽었던 사람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 살아난 '사람의 영'도 있고
과거 육을 따라 살았던 '옛 사람'도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인간의 구성요소는 원래 영/육/혼인데
죄로 인해 영이 죽었었고
따라서 육에 근본을 두게 된 인간이 타락한 육적 본성을 따라 사는 동안 형성된 '인격'인 옛 사람이 사람을
지배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였고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최초 인간을 창조시와 비교해서)
성경은 이제 옛 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새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새사람이

'자기 부인과 성령의 통치에 순응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인격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인격'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떤 고민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면 그것은 여전히 사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에서, 없는 것에서 출발하여 인생의 과정을 통해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 가려고 하고, 또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 원래 있던 인격에 변화가 발생해서
신성을 닮은 인성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성취의 과정도 보통 사람의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인성에서 출발하게 되고 도달하게 되는 결과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도 결국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노력에 의해-그것이 믿음이든 기도가든 순종이든 무엇이든 간에-새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새사람이란 신성을 닮은 인성을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신성을 성령충만을 통해 받아드리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이 임하시게 될 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자기부인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점령하게 될 때 새사람을
입는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격을 다듬어가고 성장시켜간다는 개념보다는 완성된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는 과정이 될
텐데요

성령충만을 통해 이미 완성된 새사람이 우리를 점령해 가는 것이지 무언가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달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개인의 개성과 특수한 경험을 반영한 산물이 아닌 예수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일종의 자기수련-을 통해 새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인을 통해 이미 완성된 새사람을 선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새사람=예수그리스도(성령)를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새사람은 입는 다는 것은 둘째 과정에 가까운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새사람을 입는 것을 첫째 가정으로 이해할 때

그 길은 너무도 험로이고 불완전한 길이며 각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가 '자기부인'을 통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